

광주공고 동문들, 후배들에 '통 큰 장학금'

총동창장학회 '광주형마이스터고 1기' 1학년 140여명 전원 100만원씩 전달 현장 경쟁력 갖춘 기술 인재 성장 기대

광주공업고등학교 동문들이 모교 후배들을 위해 통 큰 장학금을 지원했다. 광주공고는 지난 18일 교내 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광주형마이스터고 1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고 1학년 학생 140여명 전원에게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광주공고 총동창장학회가 광주형마이스터고 1기인 1학년들이 미래 산업 현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 인재로 성장하는데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것이다. 광주공고는 지난해 7월3일 광주형마이스터고로 선정된 이후 새로운 도약을 꾀하고 있다.



광주공업고등학교는 지난 18일 교내 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광주형마이스터고 1기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총동창장학회가 지원한 장학금을 1학년 학생 140여명 전원에게 각 100만원씩 전달했다. (광주공업고등학교 제공)

광주형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의 장점을 특성화고에 도입해 미래 산업 분야 및 지역 전략 산업 분야를 융합한 지역 기반 산업 인재를 육성하는 로컬마이스터고 형태의 특성화고다. 총동창장학회는 2025학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주형마이스터고 1기 노지완 학생은 "광주형마이스터고 입학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응원을 받아 감사드린다"며 "선배들의 뜻을 이어 학업과 학교생활에 최선을 다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희동 광주공고 총동창장학회 이사장은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고의 힘은 사람에 있다"며 "장학금 수여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선배들의 마음과 모교의 전통을 잇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태호 교장은 "이번 장학금이 광주형마이스터고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고는 지역 미래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취업과 진학이 모두 가능하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 오는 10월20~23일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박선욱기자



조선대 의대 동문 황오열씨 대학 발전기금 3억원 기부

조선대 의대 동문 황오열(사진 가운데)씨가 모교와 의과계 발전을 위해 3억원을 기부했다. 19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대학 본관 2층 청출어룸에서 '황오열 동문 의과대학 발전기금 기부식'을 열고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금을 통한 후학 양성의 의미를 되새겼다. 기부식은 황오열씨와 배우자 이신혜 여사, 김춘성 조선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전제열 부총장, 안영준 의과대학장, 신병철 부학장, 위성욱 대외협력부처장 등이 참석했다. 의과대학 3회(1975년) 졸업생인 황씨는 30여년간 성형외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의료 발전과 사회공헌에 앞장서 왔다. 그는 "의사로서 원칙과 양심 그리고 소신을 지키며 환자를 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평소 마음에 두었던 뜻을 이번 기부를 통해 실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후학들의 성장과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춘성 총장은 "황오열 동문의 귀한 기부는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의미 있게 쓰여 연구 경쟁력 강화 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조선대는 이 뜻을 이어받아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광주매일신문 견학 체험

지역신문발전기금 미디어 교육 사업에 선정돼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광주매일신문은 19일 오전 9시 광주 광산구 반딧불이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사 견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분사 편집국, 광주매일TV 미디어룸 등을 둘러보고, 각 부서별 기자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1~3차 순회교육에서 '신나게~ 재밋게~ 함께 만드는 학교신문·가족신문' 교재를 활용해 기사 쓰기 실재 사례와 신문 편집 디자인 원리 등 신문 만들기 기초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취재기자의 현장 기사와 사진이 편집 과정을 거쳐 인쇄소에서 제작되는 전 과정을 보면서 신문의 소중한 가치를 배웠다. 학생들은 광주매일신문만의 특화된 융·복합 시스템도 체험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신문을 보며 AI의 신문 읽기도 들어보고, 본보 미디어팁과 영상 제작을 함께 하며 뜻깊고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한편, 광주매일신문은 각 지역아동센터 순회교육이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신문을 공모, 시상식을 갖는다. /박희중기자



전남대 동물병원-아크로셀 '반려동물 연구' 협약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최근 아크로셀 바이오사이언스와 반려동물 의료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 인프라와 기술력을 결합해 ▲반려동물 질환 기호·응용 연구 ▲줄기세포·엑소좀 기반 치료제 개발 ▲임상시험 설계·수행·분석 ▲연구 인프라·시료·기술자료 상호 지원 ▲학술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사업화 검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크로셀은 인체와 반려동물 유래 줄기세포 및 엑소좀 연구개발에 특화된 바이오 기업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대상 재생의료 분야에서 기초연구부터 임상 적용까지 수의과학 전

문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측은 향후 국가연구지원과제 공동 신청, 임상시험 추진, 기술사업화 등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봉주 전남대 동물병원장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과 학계의 협력이 필수"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수의학 연구 혁신과 산업 발전을 함께 이끌겠다"고 말했다. 손영범 전남대 수의산과학 교수(줄기세포치료센터장)는 "줄기세포와 엑소좀 기술은 반려동물 난치성 질환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며 "이번 협력이 수의 재생의학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진기자



광주여대 보건진료소 '찾아가는 건강케어' 성료

광주여자대학교 보건진료소는 "최근 광산구 우산동 송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찾아가는 건강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주민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학과 부스에서는 '대사중후군 예방 및 관리'가, 물리치료학과 부스에서는 '바른 자세 교육' 등이 이뤄졌다. 보건진료소는 복지관을 방문해 혈압, 혈당, 총콜레스테롤, 복부 둘레 등 대사중후군 관련 검사를 진행하고 생활 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했다. 또한 바른 자세 검사를 통해 거북목, 굽은 어깨, 골반 전방 경사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방법을 안내했다. 광주여대 보건진료소 서포터즈(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주민 건강에 적용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봉사과 학습을 함께할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보건진료소 관계자는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건보공단 광주서부지사 '장기요양급여 이용 설명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서부지사는 "최근 광주시 광역치매센터와 협력해 '장기요양급여 이용 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생애 최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와 그 가족들에게 올바른 급여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위생 소모품 무료 이용 등 차매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나방군 광주서부지사는 "광역치매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매 조기검진을 안내해 수급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전남대병원, 오는 29일까지 '한여름의 북캉스' 선포

전남대병원이 찾아가는 서점 '한여름의 북(Book) 캉스'를 선보이고 있다. 19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교보문고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환자·보호자·직원·방문객 모두가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주말을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병원 1동 1층 미디어갤러리 앞에서 진행한다. 교보문고는 도서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책 읽는 문화를 장려하는 한편, 매출액 일부를 지역 사회 공헌 활동에 환원해 나눔 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전시·판매 코너에는 ▲2024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 작품 모음전 ▲모두의 서재·이달의 지식총선소 추천 도서 ▲분야별 베스트셀러 ▲유·아동 도서 ▲문구·잡화(필기구, 다이어리,



디자인 소품, 방향제, 손선풍기 등) 등 다채로운 아이템이 준비됐다. 정진 병원장은 "병원이 단순히 치료를 받는 공간을 넘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여유를 누리는 문화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수희기자

담양경찰, 수해 현장 찾아 대민 봉사활동

담양경찰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무정명 영천리와 수북면 정중리 등 수해 현장을 찾아 대민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9일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계속된다. 경찰은 침수된 비닐하우스와 주택에서 토사 제거, 가재도구 정리, 배수로 정비 등을 지원했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에 오히려 경찰관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함께 향후 피해 예방을 위해 민·관·경이 협력해 살기 좋은 담양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담양=정승균기자

도교육청 '칭찬합시다' 7월 주인공 용민호·고지연 코치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지도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칭찬합시다' 캠페인 7월의 주인공에 무안고등학교 여자 핸드볼팀 용민호 코치와 광양중마초등학교 수영팀 고지연 코치가 선정됐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안고 용민호 코치는 9년간 학생선수들과 동고동락하며 기술 지도뿐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과 진로까지 함께 살폈다. 운동을 포기하려던 학생이 다시 훈련을 시작해 전국대회 메달을 따고 팀 주장이 되는 과정에는 용 코치의 진심 어린 격려와 믿음이

있었다. 광양중마초 고지연 코치는 수영 기록 향상은 물론, 생활습관, 건강, 심리적 안정을 세심하게 살피며 부상과 슬럼프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신감을 되찾도록 끝까지 곁을 지켰다. 학부모들은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돌보는 진정성 있는 지도자"라고 입을 모았다. /박선욱기자



모집

▲광주매일신문 제7기 전남글로벌리더스아카데미 원우회(회장 정현택) 8월 모임 = 21일(목) 오후 6시30분 남양 시골집.

행사

▲제4회 '죽화경(竹花景)' 유럽수국축제(대표 유영길)=31일(일)까지 장미정원 죽화경, 개장시간: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담양군 봉산면 유산길7(유신리 474). 이용안내: 010-8665-7884.